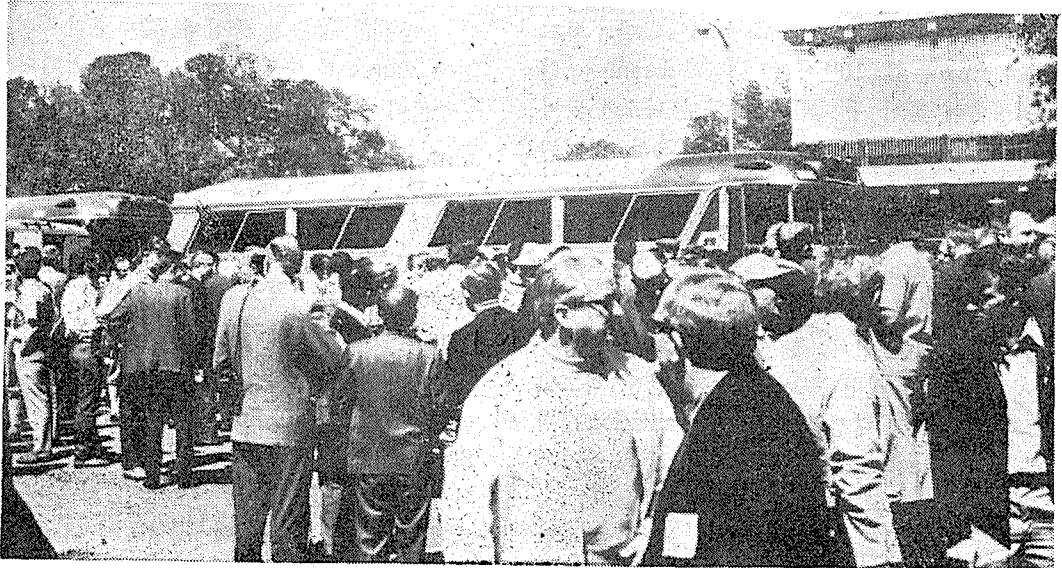


제15차 국제임업연구 기관연합회 (IUFRO) 대회에 참석하고

본 연합회 부회장 현 신 규



임학분야에 있어서 유일의 순 학술적 단체인 UFRO의 第15차 대회가 지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Florida 주 Gainesville에 있는 홀리리다 대학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 임업시험장장 이승윤씨와 본인이 대표로서 참석하였었다. 이 단체는 문자 그대로 각국의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기관과 임과대학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이며 1898년 Austria국 Wien에서 임업에 관한 시험과연구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발족한이후 그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일시중단은 되었었으나 전쟁후다시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면서 지난 14차 대회까지는 모두 Europe에 있는 나라에서만 도라가며 회합되어오던것이 금번 처음으로 Europe 지역이외의 지역인 미국에서 개최케된것이 특히 다른점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80개국의 240여개의 임업과학에관한 대학과 시험연구기관이 회원기관으로 되어있으며 임업역사(History of Forestry) 임학술어와문헌(Bibliography and Terminology) 산림의 환경에 대한 영향과 수원지관리(Forest Influence and Watershed Management) 산림입지에관한연구

(Research of Site Factors) 산림 식물의 연구(Study of Forest Plants), 임산물 가공개선

(Means for Amelioration of Forest Production), 산림보호(Forest Protection), 임목의 생장수학과 산림경영(Study of Growth and yield and Forest Management), 임업경제(Forest Economics), 산림작업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임산물의 가공화학(Forest Products) 등의 분과회로 나누어서 각개연구기관에속한 교수 및 연구자들이 각기전문분야에 가입하여 국제적인협력밑에 연구를 실시케하기 위한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가 매 4~5년마다 대회를 개최하고 각 분과회별로 심포지움 및 연구발표회를 갖게하여 서로의 연구교환과 금후의 연구에 대한 협력을 추구하고있다.

대회장소는 Florida 대학의 J. Wayne Reitz Union을 중심으로하여 부근의 수개 교실에서 개최되었으며 3월 15일 개회식은 동 Union의 Ballroom에서 60개국에서 파견된 800여명의 대표들이 모인중에 대회장인 오레곤대학의 G. M. Jemisen 교수의 개회인사 를비롯하여 Florida 大學林學部部長 J. L. Gray 교수, 미농무성 산

림국장 E. P. Clsff 박사, Florida 주지사, Gainesville 시장 등의 환영사 및 FAO의 임업부장 Stenberg 박사와 국제 임학회 연합회회장 Harper 박사의 축사에 이어서 IBP의 과학부장 E. B. Worthington 박사의 금번대회의 주제인 “임업의 실제활동의 집약화에 대한 임학학술 연구의 역할”에 대하여 특별강연이 있으므로서 개최 순서를 맞이였다.

그리고 이어서 동일오후부터 동 20일까지 위에 적은 11개 분과회가 주관하는 130개의 Working group 주최하에 심포지움과 연구발표회가 수개강당과 교실에서 버려졌었다. 총 1800여편의 연구논문과 연구발표가 있었던중 우리나라에서 제출접수된 논문이 5편 그중 2편은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였다. 그것은 22분과회 Working Group on Quantitative Genetics가 주최하는심포지움에서 발표된 Developing advanced genetic breeding populations for a hybrid breeding program(발표자 현신규)과 동분과의 Working Group on Reproduction of Forest Trees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ontogeny of the staminate and ovulate strobili in *P. rigida*(발표자, 홍성옥, 현신규)이다.

130여개의 Working Group의 회합에서의 논의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적을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임업의 준농작물적 재배에 의한 초단벌기 목재수확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음이 현저한 사실이었다. 즉 성장, 재질, 내병충성 품종의 육성과 토양관리와 세비 및 관수 등 재적생산 촉진요인에 관한 연구에 특히 주력하고 있음이 엿보였으며 더욱이 병충해 방제를위한 농약사용에 의한 공해문제가 크게 다루워져서 생물학적방제 및 성충몬등 해충의 유인물질의 연구등이 진전되고 있었다.

또한 각국마다 노동력의 부족과 노임의 상승현상에 대비하여 파종, 식재 조립지의준비는 물론 목재의 수확도 모두다 고도로 기계화되고 있는 향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합회의 정관의 변경 : 전술한바와 같이 연합

회는 각국의 대학과시험연구기관이 회원구성을 하고있어 그 각개 기관에속한 교수나 연구관들이 실질적인 회원으로서 활동하게되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국제적인 협동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동시에 횡적(橫的)인 협동을 더욱 쉽게하고 소위 팀웍(Tema Work) 구성에 주력하기 위하여서지금까지의 11개분과회(Section)를 묶어서 다음 6개 부회(Division)로 묶은 대신에 주제군(Subject Group)과 과제군(Project Group)을 임의로 둘수있게 하는 동시에 또한 각개 Group의 활동의 전문화를 위하여서 임의로 다수의 전문소위원회(Working Party)를 두게하여 각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연구활동의 국제적 협동과 Team Work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에 말한 6개분야(Division)은

1. 임지, 조림, 성장과 수확
(Site, Silviculture, Growth, and Yield)
2. 산림식물과 보호
(Forest Plants and Their Protection)
3. 산림작업과 기술
(Forest Operations and Techniques)
4. 산림정책, 경제, 경영과 계획
(Policy, Economics, Management, and Planning)
5. 임산물
(Forest Products)
6. 일반적문제
(General Subjects)

그리고 이상 각 부회의 회장으로서는 각국에서 선출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에서 선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제1부회장 : 유고슬라비아국의 D. Mlinsek 교수
 제2부회장 : 미국산림국 시험연구부장 Dr. R. Z. Callahan
 제3부회장 : 스웨덴국의 Dr. B. Ager.
 제4부회장 : 서독의 Dr. G. Speidel,
 제5부회장 : 미국의 Dr. H. O. Fleischer
 제6부회장 : 불란서국의 J. Parde 교수

상기의 International Council 는 본연합회의 최고결의 기관으로 전술한바 정관의 개정도 이 국제위원회에서 결이되었을 뿐아니라 다음 16차 대회의 개최장소와 그대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도 하였는데 다음대회는 노르웨이국에서 초대한다는 신청이 접수되어 1976년 6월 중에 노르웨이국에서 개최기로 하는동시에 따라서 다음대회의 회장은 노르웨이국의 Ivar Samset 교수가 피선되었으며 부회장으로는 17차대회 개최 예정지로 삼고있는 캐나다국의 Dr. D. R. Redmond 가 피선되었다.

3월 20일 하오에 드디어 본대회의 막을내리는 폐회식이 역시 Reitz Union 의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었는데 폐회식에서는 특히 40세미만의 청년 학도로서 입학의 학술연구에 현저한 업적을 올린 5명의 학도에게 대회의 금메달 증정이 있었는데 미국인 2명, 오지리인 1명, 호주인 1명 캐나다인 1명이 었는데 그중 미국 North Carolina 대학부교수로 있는 우리 한국인(2세)인 Dr. Gene Namkoong 이 임목육종 특히 양적 유전의 이론 발전에대한 업적에 의하여 금메달 수여를 받은일은 2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자량이 아닐 수 없었다.

또 이폐회식에서는 유유럽 캐나다 남미대양주 및 아시아의 5개 지역의 대표자의 본대회에 대한 평가와 주최측에 대한 사사를 진술하였는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서는 본인이 지적을 받어서 약 7분간의 Speech 를 할기회를 차지 하였었다.

끝으로 본인과 이승윤 임업시험장이 본대회에 참석하므로써 거둔 큰 수확만을 적으면,

1. 협동연구실시의 체결

우리나라의 주요조림수종의 하나인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Miu)는 그 종자의 산지에 따라서 성장과 수형의 우열에 큰 차이가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어느산지의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미국의 yale 대학 및 미국산림국 이 협력하여 40여 개 산지의 종자를 채취하여 미국과 한국에 동일한 Design에 의하여 식재하여 두나라에서의 산지별 성장지형을 비교검토키로 협약하여 그 종자의 분양을받은 일,

2. 미국 산림국 및 North Carolina 대학과 협동하여 리기다. 세로티나(Rigida x Serotina)의 교잡에의한 일대잡종 생산과 그특성에 관한 시험을 두나라가 서로 실시하여 그성적을 비교하도록 약정한일.

우리나라 잣나무 조림지에 최근에 나타난 수병(Rust)의 원인균에 대한 연구규명을 캘리포니아대학 및 북부임업시험장과 협력실시할것을 약정한일.

Wisconsin 대학과 우리나라 임업시험장이 우리나라의 옥심한 산림해충인 솔잎혹파리 의천적 교환과 그증식연구에 서로 협력할것을 약정한일 Florida 대학과 Wisconsin 대학이 학비를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임학전공의 대학원 학생을 받아 줄것을 약정한일 등등을 들 수 있다.

대회 참가의 소감 :

본대회가 창립한후 70년만에 처음으로 유유럽 지역을 떠나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최케된 주 동기는 물론 임업과학의 leadership 에 있어서 미국의 위치를 높이평가 된데 있는것이 물론이니 만큼 미국에있어서의 임업과학 분야의 진보는 대전후 실로 다른어느나라도 따를 수 없는 정도로 진보된것이 사실인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으며 이는 주로 미국 학자들의 수적우세와 그들의 강렬한 책임감과 또한 철저한 협동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실지로 대학과 연구소등을 방문하여서 그들의 연구실태를 엿보고 절실히 느낀사실이였다.

Senior 교수나 연구관 들이 몸소 실험실에서 또는 포장에서 대학원 학생들과 같이 섞이어서 실험 실습하는일이 상례이며 춘기의 제한된 기간에 해야만할 포장이나 온실에서의 실험실습을 돕기위하여서는 연구소의 서무직원들까지 모두 총동원되어서 일을 돕고있는 모양을 보게 될때 참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의 소위과학자 연구자들의 자세에 있어서 크게 반성하여 그 강렬한 책임감과 협동정신을 반드시 본받는 일이 우리나라과학진흥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일인것을 절실히 느끼었다.